

편집 후기



꽃등인 양 창앞에 한그루 피어오른
살구꽃 연분홍 그늘 가지 새로
작은 뗏새 하나 찾아와 무심히 놀다 가나니.

적막한 겨우내 들녘 끝 어디에서
작은 것 엮고 다리 오그리고 지내다가
이 보오얀 봄길을 찾아 문안하여 나왔노.

앉았다 떠난 아름다운 그 자리 가지에 여운 남아
뉘도 모를 한 때를 아쉽게도 한들거리나니
꽃가지 그늘에서 그들로 이어진 끝없이
작은 길이어.

‘방재와 보험’ 봄호 제작작업이 끝나 고개들
어보니, 그냥 와 안기는 봄날이 기다리고 있었
다. 다가오는 봄날, 그 화사한 나날들을 독자
여러분과 함께 기다리면서 청마 유치환님의
「春信」을 들려드립니다.

덧붙여 이번 호에 방재시험소 개소 3주년을
맞아 이에 관해 글 써주신 분들께 한번 더
감사드립니다. <卿>

원고마감 임박해서 핑크날 때의 심정은
물에 빠진 사람에 비유하기도 한다. 그것도
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된다면 사태는
더욱 심각해진다. 부족한 면을 채우는 것도
문제지만 핑크로 인하여 편집이 의도된 방
향으로 흐르지 못하고 표류내지 부실해지기
때문이다. 핑크로 고생은 했어도 인쇄를 넘
기고나니 한고비는 넘긴 것 같으나 고민은
여전하니.....

바쁘신 중에도 원고주신 집필진과 독자
여러분께 감사드리며, 특히 그동안 방재취
즈에 상품을 제공하여 주신 로렌스시계공업
(주)와 (주)대성산업에 감사드리며 무궁한
발전을 기원한다. <建>

투고를 환영합니다

계간 「방재와 보험」은 방화관련 종사자는 물
론 보험관계자와 방재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 모
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.

「방재와 보험」지에 유익한 내용이라면 분량에
상관없이 언제든지 보내주시시오. 채택된 원고
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.

□ 원고내용

- 화재보험의 손해보상으로 성공한 사례
- 소방관의 체험담 또는 소방수기
- 화재현장 목격담
- 시, 수필, 수기, 폰트 등 문예작품

□ 보낼 곳

1150-01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-4
한국화재보험협회 홍보부
「방재와 보험」담당자앞

防災와保險 1989/봄호 계간·비매품 <통권 제41호>

등록/마-827호(1973년 10월 11일)
발행/1989년 4월 1일
인쇄/1989년 3월 25일
발행겸 편집인/이상규
인쇄인/성전문화인쇄/강재수
사진식자/창미문화사
발행처/한국화재보험협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-4
편집실/직통 780-8156

※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합니다.